**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조류**

기쿠치 계곡에는 연간 6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가능한 이유는 풍요로운 삼림과 맑은 강의 생태계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새는 인간을 피해 보통 하이킹하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간다. 하지만 일반인도 이 지역의 들새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특징적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기쿠치가와 강 주변의 나무들에는 등과 날개가 회색, 배가 밤색, 머리가 흑백인 **곤줄박이**, 등이 황록색, 날개가 청회색, 머리가 검은색이고 뺨이 하얀 **박새**, 몸이 옅은 갈색과 회색이고 부리가 뭉툭한 **오목눈이**가 일년 내내 서식하고 있다. 강변에서는 등이 회색이고 배가 선명한 레몬색인 **노랑할미새**와 몸길이 40센티미터 정도로서 머리에 댕기깃이 나 있는 흑백의 **뿔호반새**도 자주 볼 수 있다. 계곡 상류에는 펼친 날개 길이가 최대 175센티미터에 이르는, 당당한 흑갈색의 맹금류인 **뿔매**가 서식하고 있다. 이 최상위 포식자의 존재는 식물 연쇄가 발달한 건강한 생태계를 나타낸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는 철새가 계곡에 나타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오는 색깔이 선명한 **큰유리새**의 울음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진다. 이 새는 적어도 에도 시대(1603~1867년)부터 휘파람새, 붉은가슴울새와 더불어 ‘아름답게 우는 일본의 3대 새’로 여겼으며, 유려하고 아름다운 가락이 있는 울음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르면서 친숙해졌다고 한다. 기쿠치 계곡에 찾아오는, 몸집이 더 크고 아름답게 우는 새는 **두견이**로서, ‘꾜꾜 꾜꾜꾜’ 하고 4구로 구성된 짧은 소리로 울어 천 년도 더 전부터 귀족들이 읊은 일본 고유의 시 와카에도 등장하고 있다.

고요함이 계곡을 감싸는 겨울에는 등이 갈색이고 배가 희며, 부리가 회색과 노란색인 **흰배지빠귀**가 먹이를 찾아 삼림 지표면을 돌아다니며 낙엽을 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잎이 진 나무들 사이에서 **코퍼긴꼬리꿩**이 드문드문 보일 때도 있다. 광택이 있는 갈색 깃과 긴 꼬리가 우아한 일본 고유의 새다. 수컷은 노란색 부리와 붉은 얼굴이 특징이고, 암컷은 몸집이 작고 몸 전체가 회갈색이다.